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늘푸른사랑방 공동체생활이 15일(금)~17일(일) 공동체에서 있었습니다.
- 한국공동체협의회 한마당 잔치가 18일(월)~20일(수)까지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모입니다.
- 꾸러기학교와 어린이학교가 21일(목)에 멧쟁이학교가 24일(주일)에 2학기 개학을 합니다.
- 기독교대안학교 연맹 사무총장 및 뉴젠리더십학교 등 교장 3인이 21일(목)에 우리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 공동체학교 전체 교사모임이 23일(토) 10시 30분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故 조영길님(배우자: 박무상 집사) 장례식이 16일(토)에 있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상 · 임미숙 집사 가정 (감사)
진용용 · 우창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3 호

2025년 8월 1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신앙인

8월 15일은 광복절(光復節)입니다. 올해의 광복절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한국이 식민지 배로부터 해방된 날과 1948년 8월 15일에 기미년(1919년)에 수립된 임시 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겸하여 광복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광복절은 빛날 광, 회복할 복, 마디 절로 회복하여 빛이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할 복(復)자는 復자는 𠄎(조금 걸을 척)자와 复(갈 복)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复자는 성(城)을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아가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네이버한자] 회복할 복(復)자는 다시 부로도 사용됩니다.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復活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쟁 후에 빼앗긴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갖게 된 것을 의미 합니다. 어려움 전의 영광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형 에서와 함께 살다가 하란 땅으로 갔다가 다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인 희년이 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뒤에 선포되는 해입니다. 이때에는 땅과 집은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고, 노예는 해방 되고, 빚은 탕감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기도시간에 나와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등은 자신과 일 중심의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의가 아니지만 자기 경험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광복을 하면서 외친 구호는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독립이란 홀로 설수 있는 것, 한 나라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독립입니다.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독립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떠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생활했을 경우를 독립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 나라가 독립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살지 않는 것처럼, 독립의 의미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여 다른 관계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만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부활절, 희년에서 볼 수 있듯이 돌아간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된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도 잘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광복, 독립의 의미를 하나님께로 돌아가 관계를 잘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

<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80, 436 / 331

기도 :

성경 : 누가복음 16장 1~13절

제목 :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1. 내용: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다 (What)

<문단구분>

- 1~13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
- 14~18절 예수님의 경고
- 19~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2. 의미: 불의한 재물 사용을 칭찬하시다 (Why)

- 1) 비용을 들여서 친구를 만들었다.
- 2) 재물을 없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유용하게 하였다.
- 3) 돈으로 묶여있던 불화와 불평등 갈등의 요소를 없앴다.

3. 적용: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자 (How)

- 1) 재물의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자.
- 2) 청지기직으로서 충실하자.
- 3) 재물을 섬기는 것을 주의하자.

문득, 새삼

요즘 들어 대화하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문득, 새삼 이거 어땠더라."

이전에 보고 들었던 것들을 다시 봤을 때, 다시 떠올랐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작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나는 자꾸만 시야가 좁아진다.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잦다. 특히나 시간에 쫓긴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더 시야가 좁아지고 만다.

최근 글을 읽다가 문득 "나 요즘 왜 이렇게 글이 안 읽히는 걸까?" 라는 느낌을 받아 옆에 있던 성찬이에게 고민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해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자신은 처한 환경에 집중하는(?) 것을 해보고 있다' 고 말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찬이의 말을 듣고 내가 요즘 시야가 좁아져서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런 건지 '문득', '새삼' 시야에 들어오는 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림리 길은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올해 런닝을 하면서 내가 본 저녁 무림리 길은 생각보다 더 예쁘고 좋았다. 내가 평소에 달리는 내 길에만 집중하느라 하늘과 옆 풍경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내 길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놓쳐 왔던 것들을 '문득, 새삼' 마주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이 되고 조급해질 때 고개를 더 숙이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느꼈으면 좋겠다.

젊은이사랑방 박예영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히브리서 11 : 1-2,6
2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예레미야서 31 : 34b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20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17 : 1-6
288

설교자
늘푸른사랑방
정재훈 목사

설교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30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채영학 박경희 / 봉헌위원 : 박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특히 고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던 일들이 작은 잘못이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어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는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였고,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의무임을 단호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실천을 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돌보아주며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영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학동안 교사들은 지난 학기를 함께 되돌아보며 꾸러기들을 더 잘 보살피자 마음을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꾸러기들이 봄에 심고 열매를 제대로 따지 못한 토마토는 방학동안 열매를 조금 맺더니 벌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길게 자란 풀이랑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랑 나중에 심어 이제 열심히 자라는 토마토가 꾸러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러기 학부모회에서는 장난감과 깔개 등을 가져가 깨끗이 닦고 빨며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꾸러기들을 새학기로 초대하는 예쁜 손편지가 꾸러기사진 뒷장에 붙어 꾸러기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교사들은 자연예배당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합니다. 목요일이 되면 다시 꾸러기들이 웃고 떠들며 노는 소리가 자연예배당을 가득 채우겠지요. 새 학기에도 꾸러기들이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꾸러기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길 것만 같았던 여름방학이 끝나갑니다. 유난히 폭염과 폭우가 무섭던 여름 날이었지만 어린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방학동안 가족과 여행도 다녀오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모임도 참여하고 친척집도 방문하고 6학년들은 초등 졸업검정고시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도 2학기 준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일 각 교실에 있는 제습기의 물을 비우고 살폈습니다. 또 2학기 있게 될 수업들을 위해 교재를 준비하고 강사선생님들과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8월 여행과 미리 준비해야하는 도보 여행과 졸업여행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학기는 2학기보다 조금 짧습니다. 방학동안 모두 쉼을 누리며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한 만큼 2학기에도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땀을 줄줄 흐르게 만드는 무더위도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말은 즉, 개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멋쟁이들이 없는 이곳을 방문하시기도하시고, 공동체생활에서 임시숙소로 생활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22일 금요일에 있을 예비소집을 위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떠날 지리산 준비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끝나가는 방학 기간에 벌써부터 멋쟁이들이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눈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 멋쟁이들은 지리산 여행을 잘 소화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던가, 신발을 갖출다던가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난 몇 년간은 비 때문에 천왕봉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멋쟁이들의 마음이 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여행이 평소보다 더욱 특별한 이유는, 새롭게 입학하는 멋쟁이들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이 힘든 시작을 모든 멋쟁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잘 극복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납시다~

< 교사 : 이어진 >

팔월의 밭머리에서

팔월 중순이다. 아직도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들지만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무지막지하게 습하고 더웠던 바람이 더 이상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 더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나보다.

아침에 고추를 땀다. 지난번에 한차례 따고, 또 땀어야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따지 못하고 오늘에야 땀다. 고추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 정리해 주고, 줄을 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고추의 꼬트머리가 점처럼 검게 썩어 가는 게 보였다. '탄저'병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일단 상처가 있는 놈들을 따서 멀리-가까운 곳에 버리면 균이 고추에 다시 옮는다는 말에-버렸었다. 다행히 탄저가 아닌지 다른 놈들은 잘 자랐다. 튼실하게 자란 놈들을 지난번에 한 번 따고 오늘이 그 두 번째인 것이다. 고추를 깨끗이 씻고 꼭지를 따낸다. 물기를 빼고 나면 봉지에 넣어 무림리 안쪽에 사시는 박집사님네로 가져간다. 그러면 고추는 우리 손을 떠난다, 그 다음은 잘 말려진 고추를 이 권사님이 모아서 방앗간으로 가서 빵아 오시리라. 그리곤 언젠가 공동식사에서 만나리라.

이 작업이 한해살이 고추와 함께 하는 우리의 일정이다. 나는 이제 겨우 두 번 했는데 아직 실수투성이다. 심겨진 고추밭을 보면 너무 적게 심었나 싶은 마음에 욕심이 나는데, 딸 때는 허리를 구부려 따려면 힘이 들어 왜 이리 많이 열렸는지 궁시렁 거리다가 그런 나를 보고 웃는다.

공동체생활 전만해도 밭에 가면 오이, 토마토, 참외가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들 열매가 없는 늙은 가지들을 치울 때가 되었다. 그래도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아서 고구마의 무성한 잎이 있고, 참깨와 들깨가 키 자란을 하고, 잘 자란 고추밭이 풍성해 보인다. 창고에서는 새로 심을 모들이 모판에서 열심히 싹을 틔우고 있다. 이것들을 비워진 밭에 심으면, 잡초들이 에워싸고 벌레들이 먹고 겨우 살아 남은 싹들이 자라서 배추가 되고 무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 밭에서는 진짜 한해가 감사함으로 지나간다.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50장, 585장

성경 : 역대하 20장 13-17절

말씀 :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세계 2차 대전의 종전일이 8월 15일입니다. 세계가 다시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한마당을 위해>

한공협(한국 공동체 협의회) 한마당 잔치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8월 18일(월)~20일(수)에 경주 성호리조트에서 모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각 공동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

2) 개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휴가 기간이지만, 곳곳을 수리 보수하고 밭일도 계속된 한 주였습니다.

자연예배당 보일러실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중 이고, 방송실도 이전하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밭에 고추를 수확하여 씻고 말리는 작업도 했습니다.

주초에 많은 비로 인해 곳곳에 누수가 있어 정비를 해야 하고, 각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여러 곳을 살피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생활공동체 식구들의 손이 바빠질 예정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